

# 2022 August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7월 동향

**한-미 통화정책이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의 매파적 시행에도 향후 경로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인식과 향후 경기침체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 반영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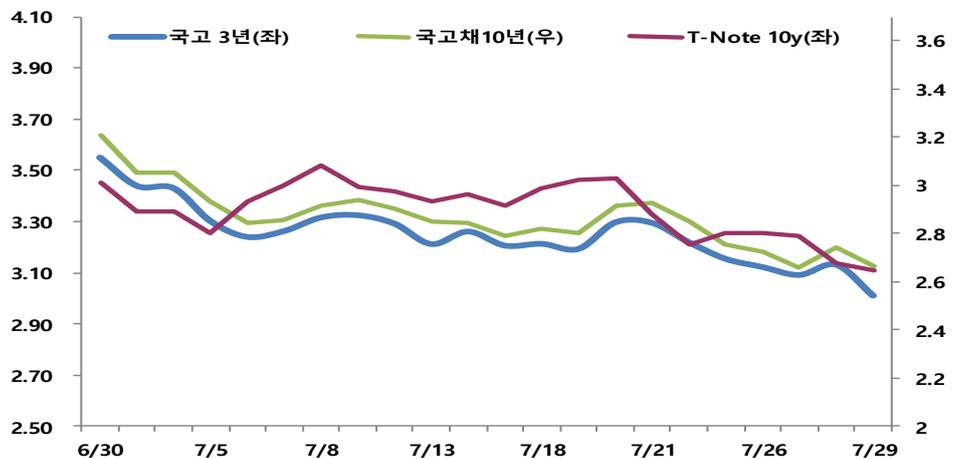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초반부터 불거진 가운데 미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지속 등이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

한은 빅스텝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 선반영 속 미 CPI의 고공행진 지속에도 울트라 스텝 전망 후퇴 등이 하향 움직임에 영향

IMF 세계 경제 하향 수정 전망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반영과 향후 연준의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비둘기적 스탠스 등이 반영

- 7월 초, 세계 경기둔화 우려와 미 금리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하지만 연준 6월 의사록의 인플레이션 대응 중시 언급 등으로 미 금리에 연동하며 상승 전환
  - 7월 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반영 속에 국내 6월 소비자물가의 6% 상승에도 시장 예상 부합 등에 따른 한은 빅스텝 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 이어 미 경기침체 우려 확대 속에도 연준의 6월 의사록에서의 우선적 인플레이션 대응 시사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세에 연동하는 모습
- 중반, 한은 금통위의 빅스텝에도 하반기 추가 인상 경로가 비둘기적이라는 시장 인식 등이 상단을 제한한 가운데 미국 CPI 급등 지속에도 100bp 인상 전망 후퇴 등으로 하락 국면
  - 7월 중반, 한은 금통위에서 물가 대응에 따른 빅스텝 금리인상 결정에도 향후 추가 인상 경로가 베이비 스텝 전환을 내비침에 따른 비둘기적 스탠스에 국고채금리 상단이 제한되는 국면
  - 이후, 미국 6월 CPI의 9.1% 급등 결과에 연준의 울트라 스텝에 대한 우려 등으로 큰 폭 상승 전환했으나,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 100bp 인상 전망 후퇴 등에 따라 소폭 하락 추세 전환하는 영상
- 후반, ECB 빅스텝 금리인상이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금리 상승 제한한 가운데, 다소 비둘기적이었던 FOMC 결과 속에 IMF의 세계 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하락 마감
  - 후반, 러시아의 유로존 가스 공급 재개가 일시적 위험선호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어진 ECB의 11년 만의 빅스텝 금리인상 결과가 향후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하며 글로벌 금리 하락 속에 국고채 금리도 연동하는 양상
  - 연속 자이언트 스텝 결정에도 향후 금리인상 속도 제어를 시사한 FOMC 결과 이후 미 국채금리 하락 연동 속 IMF의 세계 성장 전망 하향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형국 속에 하락 마감

###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7월 평균  
국고채(3년): 3.24%  
T-Note(10년): 2.89%

## 8 월 전망

전월 미 CPI 정점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동반 경기 하락 압력 강화 등으로 국내외 통화정책의 강도가 시장 예상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에 국고채 금리는 3% 전후에서의 등락이 예상

평균	1Q22	2Q22	3Q22	4Q22
국고채(3y, %)	2.23	3.13	3.2 <sup>(F)</sup>	3.0 <sup>(F)</sup>

전월 미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이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커지고 있다는 측면이 국내외 금리 상승 추세를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임

미국 경제의 역성장, ECB 금리인상 이후 글로벌 동반 경기 침체 우려 확대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8월 국고채(3Y) 금리는 3.00%~3.20% 예상

- 7월 FOMC에서 사이언트 스텝 결정 후, 미 기대인플레이션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 속 연준 의장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이 금리 상단 크게 제한할 전망
  - 7월 FOMC 75bp 금리인상 후, 미국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전환과 국제유가 90달러대 흐름 등이 전월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국내외 금리 상단을 크게 제한할 전망
  - 여기에 여전히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 시사에도 인플레이션 데이터 확인 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 가능성 등이 언급된 측면도 금리 상승세 제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대응한 ECB 빅스텝 결정 이후, 글로벌 동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측면은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에 따른 위험선호 반응을 제한할 전망
  -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IMF의 세계 성장을 하향 속 경기침체 우려를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흐름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 시점에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에 따른 위험선호 반응을 상당 부분 제한할 전망
  - 여기에 전쟁 이슈에 따른 유로존의 경기 불확실성이 금리 빅스텝 인상 이후 글로벌 동반 경기 둔화 흐름으로 흘러가는 국면도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분기 국내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점진적 둔화 가능성이 짙어 짐에 따라 물가 상승세 지속에 대한 한은의 대응이 베이비 스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은 국고채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2분기 국내 GDP가 0.7%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였음에도 글로벌 소비 위축에 따른 수출 경기 약화 및 국내 민간 수요의 비우호적 환경 지속 등이 하반기 국내 경제의 점진적 둔화를 질게 만들 요인
  - 이에 국내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은 추가 통화정책 대응이 베이비 스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국고채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적 연속 6%대의 높은 물가 상승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전월 CPI의 정점 가능성 증대</li> <li>· 주요국 매파적 통화정책 영향에 의한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li> <li>· 한은의 물가 대응 금리정상화에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의 선반영</li> </ul>

자료: 하나은행

# 달러/원 환율

7월 동향

미 6월 CPI가 9.1%로 최고치 경신하며 달러 강세 강화 속 1,326원대 까지 상승했으나, 연준의 75bp 금리 인상 이후 속도 조절 시사와 2분기 역성장 등이 달러 약세 전환에 영향을 미치며 1,290원대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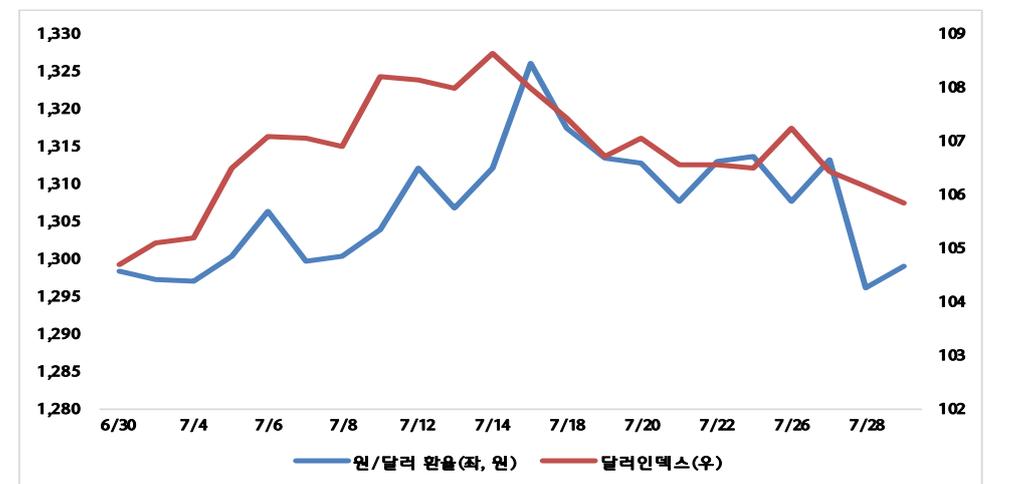
미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현상 속에 유로 경제도 침체에 대한 불안감 확산에 따라 달러 대비 등가 수준에 근접하는 약세에 따라 달러 강세 크게 심화

미국 6월 CPI가 연이은 고공 행진을 보임에 따라 연준의 100bp 인상 가능성 확대에 환율은 13년만에 최고치인 1,326원대 까지 상승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 확대 국면이 달러 강세를 지지했음에도,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비둘기적 스탠스 속 2분기 미 경제 역성장 흐름 등으로 달러 약세 속 1,200원대 진입

- 월초, 인플레이션 경계감 확대 속에 빠른 연준의 긴축 속 경기둔화 움직임과 미 장단기 금리를 역전 영향, 유로 경기불확실성 증대의 유로 약세 간접 영향 반영 등으로 상승 출발
  - 월초, 미 7월 인플레이션 경계감 확대되는 가운데 빠른 긴축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현상 심화를 가져오며 달러 강세 강화 속 환율은 상승 흐름 출발
  - 여기에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도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달러 대비 1:1 등가 수준에 근접한 영향이 달러 강세를 크게 부각시킨 측면도 원화가 간접적 약세를 받는 형국을 견인
- 월 중반, 미 6월 CPI가 9.1%로 통화정책 효과가 무력할 정도로 고공 상승세 보임에 따라 환율은 전고점을 경신. 하지만 연준의 100bp 인상 기대가 약화하며 하락 추세로 전환
  - 중반, 미 6월 CPI가 9.1%로 강한 통화정책에도 급등세를 이어감에 따른 연준의 100bp 인상 가능성 등으로 13년만에 최고치인 1,326원대까지 상승
  - 반면, 주중 한은 금통위의 물가 대응 빅스텝 금리 결정과 연준의 강한 긴축 지속 시,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100bp 인상 가능성 약화 등으로 환율은 1,310원대로 되돌림 양상을 보임
- 후반, ECB 금리인상 결과가 경기침체를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에 달러 강세 흐름 반영하다 시장 예상의 연준 75BP 금리인상과 2분기 미 GDP 역성장으로 환율은 1,290원대 진입하며 마감
  - 후반, 11년만에 단행된 ECB 금리인상 후,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시장 심리에 유로 약세 강화되며 원화도 동반 약세 전환
  - 이후, 연준의 추가 75bp 금리인상에도 이후 회견에서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언급 속에 이어진 2분기 미 GDP -0.9% 역성장 등으로 달러 약세 전환 속에 1,290원대 후반 진입하며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7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07.5  
7월말 달러/원 환율 : 1,299.1

## 8 월 전망

대만 관련 미-중 갈등이 위험회피를 강화하겠지만 미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이 큰 폭 달러 약세 견인 형국을 보인 후, 경기침체 이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과 상충하며 1,300원대 초반 흐름 예상

평균	1Q22	2Q22	3Q22	4Q22
달러/원 환율(원)	1,205.7	1,259	1,280 <sup>(F)</sup>	1,220 <sup>(F)</sup>

연속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과 유가 하락 등으로 7월 CPI는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달러화는 해당 시점에 큰 폭 강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

강한 주요 경제권역 통화정책 효과로 향후 글로벌 경기 동반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IMF의 경제전망 하향 수정 속에 뒤따르는 경기침체 우려 경고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8월 달러/원 환율  
1,270 ~1,300원 예상

-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6, 7월 연속 시행과 국제유가 90달러대 후반 진입 등의 시차적 효과로 7월 CPI 감소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그간의 달러 강세를 크게 제한할 전망
  - 연준은 7월 FOMC에서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을 단행. 이는 최근 국제유가 90달러대 유지 속에 그간 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시차적 효과 등으로 정점 이후 감소세 가능성이 클 전망에 따라 달러화의 큰 폭 강세는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여기에 파월 의장의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른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이 언급되었다는 점도 시장에 위험 선호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주요 전망 기관들의 하반기 글로벌 성장을 하향 조정 속에 경기침체 가능성 경고의 우려 점증 국면은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달러 하방 압력을 제한할 전망
  - Fed, ECB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강한 긴축에 의한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가 시장에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인플레이션 정점 이후 강달러 기조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
  - 이를 반영, 최근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3.6%에서 3.2%로 낮춰 전망한 가운데 최악의 경우 2.6%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측면 등이 경기 관련 안전자산 선호 강화를 통한 달러 강세 기조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내적 성장 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수출의 GDP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낮아진 측면 등이 외국인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일 요인으로 보임.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한은의 지속적 매파 성향 등이 앞선 영향의 환율 변동성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
  - 대중국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 속에 2분기 수출이 전분기 대비 -3.1%의 결과를 보이며 대외적 긴축 등에 따른 달러 수급 악화 가능성 등이 수급상 원화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하지만, 국내 7월 소비자물가가 6.3%로 23.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한은 금통위의 매파적 금리 인상 전망 강화 등이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을 제한하며 원화 약세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경제 강건성 약화에 따른 증시 등에서의 지속적 자본 유출 가능성</li> <li>· Fed, ECB 등의 글로벌 통화긴축에 의한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 점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월 미 CPI의 정점 가능성 증대에 따른 달러 강세 제한 가능성</li> <li>· 한은의 물가 대응 빅스텝 가능성 상존</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7월 달러/엔 평균환율 : 136.7  
7월 엔/원 평균환율 : 956.8

8월 엔/원 예상범위 : 960~980원

**미국 물가 정점 가능성과 향후 경기침체 이슈 부각 시점 등이 엔화 강세 요인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 부각에 따른 단기 달러 강세 반영과 BOJ 초완화정책 지속 등이 하단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 (엔화동향) 주요국 강한 긴축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우려가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 강화하며 하락 출발. 이어 아베 전총리 피격 사건이 일시적 엔화 강세를 유지시켰으나 영향은 다소 제한. 중반 들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압승 후 BOJ 초완화정책 지속 언급 등으로 24년래 최대치로 엔화 가치 하락. 후반 들어, 연준의 울트라 스텝 전망 약화 등으로 약세폭 제한 후, 연준 7월 통화정책 결과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달러 약세 속 강세 마감
- (엔/원 전망) 미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과 연준의 강한 긴축에 따른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 속 미 국채금리 급락 등이 강달러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운데 엔화의 기술적 피로감에 따른 최근 약세 되돌림 현상까지 겹치지며 130엔대 중반 흐름 예상. 다만, 통화완화에 대한 BOJ의 스탠스 지속 등은 하단을 제한할 전망. 엔/원 환율은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에도 경기침체 우려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가 상대적 엔화 강세 우위를 이끌며 990~1,010원 흐름 예상
  - 전월 미 인플레이션의 정점 가능성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세 제어 속 글로벌 동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 등이 단기적 엔화 약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 하지만, BOJ가 여전히 초완화적 통화 약세를 이어가는 흐름은 엔화 강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기 엔화 강세에도 미 인플레 정점 확인 이후 원화의 강세 흐름이 다소 크게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엔/원 환율은 970원대 전후 흐름 등락이 예상

## 유로/원 전망

7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183  
7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31.4

8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20~1,350원

**미 CPI 정점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ECB 매파적 추가 금리인상 예상 등이 유로 강세 요인이나, 타 경제권 대비 경기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확대된 측면은 유로 강세 제한하며 1.02달러 전후 흐름 견인할 전망**

- (유로화 동향)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우려가 유로존 경기침체를 견인할 것 이란 우려 등으로 약세 출발. 중반 들어,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지속하는 가운데 미 6월 CPI 9.1% 실현 등에 따른 연준 울트라 스텝 이슈 등으로 달러 대비 등가 수준을 하회. 후반 유로존 인플레이션에 따른 ECB의 전격적 50bp 금리인상 결정에도 경기관련 불확실성으로 크게 반등 양상 보이지 못하면서 1.01 수준 마감
- (유로/원 전망) 미 CPI 정점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달러 약세 견인할 가운데, ECB 추가 금리 인상 기대도 유로 강세 요인으로 보임. 반면, 러시아 가스 공급 추가 감축과 금리인상 효과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이 다소 우세할 전망 속 최근 강세 되돌림되며 1.02 등락 예상
  - 미 CPI가 전월을 정점으로 감소세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그간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완화하며 위험선호와 달러 강세 진정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유로 경제가 러시아 가스 공급 추가 감축과 전월 금리인상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으로 1.02 달러 전후 등락 속 상대적 원화 1,200원대 진입 예상으로 유로/원 소폭 하락 전망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2년 8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b>	<b>2</b>	<b>3</b>	<b>4</b>	<b>5</b>	<b>6</b>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치, O안은 이전치	한 무역수지 (-52575m) 수출 YoY (5.2%) 수입 YoY (19.4%) 미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 (52.3) 건설지출 전월대비 (-0.1%) ISM 고용 (47.3) 유 S&P Global Eurozone Manufacturing PMI (49.6) 중 차이인 중국 PMI 제조업 (51.7)	한 BOK Minutes of July Policy Meeting CPI (전년대비) (6%) 미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11254k) <b>Fed's Evans Hosts Media Breakfast</b> <b>호 RBA 목표금리 (1.35%)</b>	한 외환보유고 (\$483.28b) 미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 (47.5) S&P 글로벌 미국 서비스업 PMI (47) <b>NY Fed Releases 2Q Household Debt and Credit Report</b> 유 S&P Global Eurozone Services PMI (50.6) PPI 전년대비 (36.3%) 소매판매 YoY (0.2%) 중 차이인 중국 PMI 서비스업 (54.5)	미 무역수지 (- \$85.5b) 유 ECB Publishes Economic Bulletin <b>영 영란은행 기준금리 (1.25%)</b> <b>호 수출 MoM (9%)</b>	한 BoP 상품수지 (\$2741.8) 미 실업률 (6.7%) 경제활동 참가율 (62.2%) <b>Fed's Mester Discusses the Economic Outlook</b> 일 선행지수 CI (101.2) <b>영 BOE's Hux Pill speaks</b>	
<b>7</b>	<b>8</b>	<b>9</b>	<b>10</b>	<b>11 MSCI 분기 리뷰</b>	<b>12</b>	<b>13</b>
중 무역수지 (\$97.96b) 수출 YoY (17.9%) 수입 YoY (1.00%)	유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 (-26.4)	미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7.3%) 단위노동비용지수 (12.6%) 중 통화강금 M0 YoY (13.8%)	한 실업률 SA (2.9%) 미 도매무역 판매 MoM (0.5%) 주간 평균 실질 소득 YoY (-4.4%) CPI (전년대비) (9.1%) 중 CPI (전년대비) (2.5%) 일 PPI YoY (9.2%) PPI MoM (0.7%)	미 PPI 최종수요 YoY (11.3%) PPI 최종수요 MoM (1.1%) 일간 재정수지 (-\$88.8b) <b>Fed's Evans Discusses the Economy and Monetary Policy</b> 독 경상수지 (2.5b)	한 수출물가지수 YoY (23.7%) 수입물가지수 전년대비 (33.6%) 미 수출물가지수 YoY (18.2%) 수출물가지수 MoM (0.7%) 수입물가지수 전년대비 (0.2%) 유 산업생산 SA MoM (0.8%) 영 GDP(전분기대비) (0.8%)	
<b>14</b>	<b>15 광복절</b>	<b>16</b>	<b>17</b>	<b>18</b>	<b>19</b>	<b>20</b>
한	미 제조업지수 (뉴욕주) (11.1) 유 블룸버그 8월 유로존 서베이 중 광공업생산 YoY (3.9%) 일 CDP 민간소비 전분기비 (0.1%)	미 제조업 (SIC) 생산 (-0.5%) 유 무역수지 SA (-26.0b)	미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1%) 기업채지수 (1.4%) 유 고용 QoQ (0.6%) 고용 YoY (2.9%) 일 무역수지 (-¥1383.8b) 수출 YoY (19.4%)	한 당기대외채무 (\$174.9b) 미 선행지수 (-0.8%) FOMC 회의록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12.3) <b>U.S.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b> 유 건설 생산 MoM (0.4%) 건설 생산 YoY (2.9%)	유 ECB 경상수지 SA (-4.5b) 독 PPI 전년대비 (32.7%)	
<b>21</b>	<b>22</b>	<b>23</b>	<b>24</b>	<b>25 금통위</b>	<b>26</b>	<b>27</b>
한	한 Trade Balance 20 Days (-\$8102m) 미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0.19)	한 소비자심리지수 (86) 미 신규주택매매 (전월대비) (-8.1%)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 유 S&P Global Eurozone Manufacturing PMI 독 S&P Global Germany Composite PMI	한 기업경기실사제조사 (78) 미 내구재 주문 (1.9%) 자본재 수주 비방위산업(항공기제외) (0.5%)	한 BOK 7월 Repo 금리 (2.25%) 미 GDP 물가지수 (8.7%) CDP 연간화 QoQ (-0.9%)	미 PCE 근원 디플레이터 MoM PCE 근원 디플레이터 YoY 소매재고 전월대비 (2%) <b>Kansas City Fed Hosts Annual Jackson Hole Forum Aug. 25-27</b> 유 M3 통화강금 전년대비 (5.7%) 일 도쿄 CPI (전년대비) (2.5%)	
<b>28</b>	<b>29</b>	<b>30</b>	<b>31</b>			
	미 델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22.6)	미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95.7) 주택 가격 구매지수 QoQ (4.6%) 유 경기기대지수 (99) 서비스자기대지수 (10.7)	한 광공업생산 YoY (1.4%) 미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유 CPI 예상 YoY <b>ECB's Holzmann, Stourmaras, Wunsch, Muller in Alpbach</b> 중 종합 PMI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